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설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부안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기간 응급환자 진료와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79개의 병·의원, 약국, 공공보건기관이 지정된 날짜와 시간을 준수하여 운영되며,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진료 및 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부안성모병원(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해성병원은 야간진료실(오전 9시~오후 5시)을, 연철연합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오전 10시~오후 6시)으로 운영하며, 부안군보건소는 17일 설날 당일엔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부안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고창군이 설 연휴(14~18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고창종합병원(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은 보건기관 11개소, 당직 병·의원 26개소, 약국 22개소가 일차별 지정 운영한다. 연휴 첫날인 14일은 관내 대부분 의료기관은 오전에 정상진료가 이뤄진다.

고창군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진료소(10개소)는 연휴 기간 동안 오전 9시~오후 6시 정상진료하며, 권역별 진료지역을 나누어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공백을 최소화 방침이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 △군·보건소 홈페이지 △보건복지포털(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 시민 체감형 행정 총력

## ‘10대 핵심사업 공유회’ 개최... 사업 성공 추진·시정 방향성 재정비 ‘머리 맞대’

정읍시가 2026년 정읍시 10대 핵심사업 성공적인 추진과 시정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 행정의 주역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9일 시청 구청초회의실에서 부서장 주재로 23개 읍면동 총무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0대 주요 핵심사업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정읍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핵심 10대 사업을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홍보·소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정읍의 내일을 바꿈 △미래성장 산업벨트(대인 신규산단·첨단과학산단 확장) 조성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비롯해 시민 복지를 직접 겨냥한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반려동물 행복 플랫폼 조성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 △농촌지역 생활거점 기능 강화 사업 등을 공유했다.

또한, 시민에게 고품격 치유 콘텐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심 주변



관광 활성화 △치유산업 성장벨트 조성 사업 등을 공유하고 읍면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잘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사업들이 단순한 행정의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일상에 녹아들 수 있도록 ‘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총무팀장들을 중심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춘 사업 설명과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현장 밀

착형 행정 체계’를 가동한다.

유호연 부시장은 “모든 행정이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그 성과는 시민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며 “읍면동 직원 모두가 홍보대사가 돼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유회에서 제안된 읍면동 현장의 의견을 사업 세부 실행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정기적인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10대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군, 실내 테니스장 준공식 개최

### 사업비 88억 투입... 시설 확충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부안군은 9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원, 전동일 부안군체육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실내 테니스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부안실내테니스장은 총사업비 88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연면적 2,985㎡ 규모의 실내테니스장(4코트) 1동과 사무실 및 샤워실(370.74㎡) 1동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 실내테니스장 건립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7기부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변 환경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

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실내테니스장이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중심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부안 실내테니스장 준공으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의 체육활동 선택 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기자

## ‘정읍 발전 위한 시민 정책 아이디어 찾습니다’

### ‘시민 제안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1인당 2건까지 제안 가능·내달 17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다.

이번 공모전은 정읍시민은 물론 시에 연고가 있거나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안할 수 있다. 단 중복 시상은 불가능하며 1인당 1건만 시상한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및 가족 친화 정책△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체육관광·먹거리·축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금 활용 방안 △기타 정읍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7개 분야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정읍시 누리집에서 제안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zerebell09@korea.kr)이나 팩스(063-539-6504)로 전송하거나 시청 기획예산실(3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

사해 오는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등급(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노력 5명)에 따라 소정의 정읍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향후 세부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시 정책에 적극 반영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정읍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5일·17일 쓰레기 수거 일시 중단

정읍시가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의 쾌적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 청소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특히 15일과 설 당일인 17일에는 쓰레기 수거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배출 시 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시는 연휴 기간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원순환과 내에 ‘민원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상황실은 쓰레기 적치 신고 등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기동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연휴 5일 중 3일은 정상적으로 수거가 이뤄지지만, 15일과 17일은 수거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수거 중단일 전날 오전 7시부터 해당일 저녁 8시까지의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거리에 방치돼 악취와 미관 저해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쓰레기 발생원 감량을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요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해 불필요한 포장재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수거 일정을 미리 확인해 배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10~11일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 전통시장 계도 활동 병행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멸치, 굴비 세트 등 주요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허위·혼동)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전통시장 등에서는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줄 목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 온누리상품권 환급·무료 셔틀버스 운행

고창군이 설을 앞두고 5일간(10~14일) 고창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환급은 고창전통시장 동문 주차장

고객편의시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아울러 기존 장날에만 운영하던 무료 셔틀버스도 설 연휴전 매일 운행된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고창사랑상품권 20% 특별할인 혜택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함께 적용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